

• 풍향계 •

벽산 김재우 대표의 '워크아웃 탈출기'



▲ 벽산 김재우 대표

“구조조정은 무조건 사람을 자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객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곧바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기업 혁신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사람들과 친해지려는 뼈아픈 노력이지요.”

지난 달 17일 대덕롯데호텔에서 열린 대전·충청지역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벽산건설 김재우 대표는 구조조정에

대한 색다른 주장을 펼쳤다.

한국능률협회와 KMA경영자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대전상공회의소 김주일 회장을 비롯해 충청하나은행 최성호 대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원장 등 대전·충남기업 최고경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변화하여 새로운 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조정쟁 시대에서 CEO는 항상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위기와 도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령 '내가 이사나?'고 고객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그 회사는 구조조정에 성공했다는 증표일 수도 있다. 그 만큼 수평적인 조직이 됐고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대폭 위임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고객과 회사가 더 친밀히 다가갈 수 있게 됐으며 직원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벽산이 IMF 금융위기하에서의 어려운 회사 경영 환경에서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력배치를 최대한 슬림화 시키고 또 직원들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벽산은 지난 97년 997명의 인력을 1년사이 478명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김 대표는 '겉멋과의 결별'이라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책임의식을 갖게된 직원들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조직문화는 생동감이 돌게 됐다고 '구조조정' 경험담을 토로했다.

이러한 혁신과정을 거쳐 결국 김 대표는 IMF시절 어음부도율 21.1%, 단기차입금 57%였던 벽산을 올해 매출액 경상이익 7%, 부채비율 98%, 이자보상배율 3% 성과를 이끌어 냈다. 김 사장은 이어 '경영자의 리더십'에 대해 화두를 돌렸다.

그는 "표적을 아는자만이 표적을 맞출 수 있다"며 "요즘 시대에 표적을 알기가 힘든데 지도자는 표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수중기제품에 'KAIST' 브랜드 단다

내년부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KAIST 브랜드화'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펼쳐진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중소기업청과 'KAIST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KAIST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해당품목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중 15개내의 업체를 골라 중소기업의 취약기술 및 부품소재 등을 지원해 KAIST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KAIST는 기계, 전기전자, 섬유 등 각 분야별 전문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품질향상과 부품소재 등을 개발지원해 판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품질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KAIST는 브랜드화 품목 선정위원회를 통해 제품을 선정하고 'KAIST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기술품질 향상, 부품소재 개발 및 디자인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체비용의 70%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중기청은 내수 및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전시, 홍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주엔지니어링, '음주측정기' 일본서 인기



▲ 세이프드라이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있을때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기업이 있다.

휴대용 음주측정기 생산업체인 세주엔지니어링(대표 이원배)이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일본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일본측 바이어들로부터 자사의 휴대용 음주측정기 'safe-drive'의 주문이 지난해에 비해 10배가량 늘었다.

세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0만불 남짓하던 對 일본 수출고가 12월 현재까지 총 70만불이며 접수된 주문까지 합하면 100만불을 상회한다.

일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1일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기존의 혈중 알코올농도 1 l 당 0.25mg에서 0.15mg으로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면허 재취득 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음주측정기 구매를 위해 세주엔지니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미야케 니들 인더스트리, 오리엔트, 세이지, 노자와 산요 등 줄잡아 20여 곳이다.

• 풍향계 •

벤처기업 홍보나선 영화감독



▲ 양인화 감독

대덕밸리에 입주한 한 영화감독이 벤처기업 제품 홍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덕밸리 벤처기업 GG21(대표 이상지)은 독립영화협회 양인화 감독이 자사가 최근 내놓은 GPS 위성항법 유도장치인 캐치원 플러스의 홍보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지 대표는 대덕밸리벤처연합회가 주관, 매주 월요일 밤 8시에 열리는 월야모임(월요일 야간모임)에서 만나 제품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양인화 감독과 의기투합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영화는 대덕밸리를 방문한 한 외국인이 캐치웨이 플러스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로를 그려주게 된다.

주연과 조연 모두 벤처기업인들이 직접 출연하고 시나리오 쓰는 감독이 작성했다. 총 방영 시간은 5분 정도이며 전체 제작비용은 100만원이다.

이상지 대표는 “적극응해 주신 양감독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홍보영화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신제품/신기술 •

비아이지, ‘빠사랑 참곡칼슘’ 출시



쌀을 먹으면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칼슘 건강식품이 출시됐다.

환경전문 기업 비아이지(대표 정종상)는 칼슘을 키토산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빠사랑 참곡칼슘’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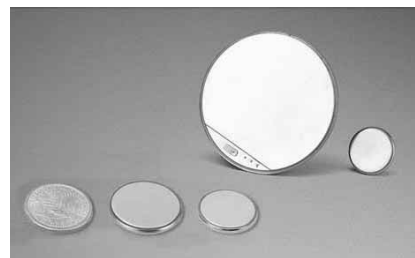
이 제품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기장과 조 등의 미세 곡립에 칼슘과 키토산을 코팅 입자화시킨 방법으로 개발됐다. 기존 칼슘 관련 제품과 달리 가족수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다.

특히 밥을 지을때 이 제품을 섞으면 칼슘과 키토산이 밥이 자연스럽게 흡수돼 다른 잡곡밥처럼 밥맛이 좋아진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과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 성인에게 필요한 1일 칼슘의 양은 7백mg 정도지만 실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제품의 출시로 일본 수출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042-934-8154

한국과워셀 2차전지, 손목시계형 PDA에 탑재



초소형 리튬이온 2차전지가 세계 유명 시계메이커 ‘손목시계형 PDA’에 탑재돼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과워셀(대표 정근창)은 세계적인 시계 메이커인 플렉트로닉스社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PDA 결합형 디지털 시계’ 전원으로 자사의 코인형 리튬이온전지가 정식적으로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렉트로닉스社는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한국과워셀과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손목시계형 PDA 전용 2차전지 배터리 개발 작업에 착수해 왔다.

손목시계형 PDA에 탑재될 2차전지는 한국과워셀이 지난해 개발한 코인형 리튬이온전지 ‘파워 디스크’로 기존 2차전지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에너지 효율면에서 뛰어난 신개념의 2차전지다.

한국과워셀은 지난 해 열린 ‘2002 추계 컴텍스’에 한국과워셀의 코인형 리튬이온전지가 탑재된 ‘손목시계형 PDA’를 출품해 모바일 기기부문에서 올해의 베스트 컴텍스상을 수상, 전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문의 : 042-864-4348